

캐나다 사절단, 포항서 배터리 순환 경제 협력방안 모색

등록 2025.01.16 11:10:09



[포항=뉴스시스] 송종욱 기자 = 캐나다 비즈니스 사절단이 15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배터리 순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과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와 캐나다 비즈니스 사절단, 국내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1.16. photo@newsis.com

[포항=뉴스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가 캐나다와 배터리 순환 경제를 위한 협력 구축에 나서 글로벌 배터리 선도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캐나다 비즈니스 사절단이 15~16일 이틀간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제안으로 포항을 방문한 사절단은 배터리 자원 순환 현장을 둘러보고, 두 나라의 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와 시범 프로젝트 추진 등 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

사절단은 한국의 이차전지 순환 경제 현장을 견학하고, 국내 기업과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12개 업체의 대표,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국가연구위원회 대표 등 40명의 경제 사절단을 구성해 방한했다.

사절단은 15일 포항 방문을 첫 일정으로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찾아 사용후 배터리 평가, 보관 시스템을 살펴보고, 오는 6월 준공되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 순환 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견학했다.

이어 배터리 재사용 전문기업인 피엠그로우를 찾아 배터리 팩 개발, 배터리 구독 서비스, 배터리 진단과 인증,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배터리 순환 경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간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시-캐나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간담회'에 참석해 두 나라의 이차전지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과 신기술 실증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강덕 시장과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지역 이차전지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을 비롯한 포스코홀딩스·네이처이앤티·엔다이브·투엔·비에스원·씨티에이 등 7개 업체의 임직원이 함께해 캐나다 기업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 배터리 자원 순환 기술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기술 협력과 해외 진출,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을 살폈다.



[포항=뉴스시스] 송종욱 기자 = 캐나다 비즈니스 사절단이 15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배터리 순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이 캐나다 비즈니스 사절단을 환영하며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1.16. photo@newsis.com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는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서 대한민국은 오랜 경제적·국제적 파트너"라며 "특히 친환경 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가기 위해 포항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이차전지 시장에서 오랜 우호 관계를 다져온 캐나다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며 "포항의 기술력과 캐나다의 자원이 협력해 지방에서 혁신 산업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절단은 16일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영일만 산업단지의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공장·에코프로 포항 캠퍼스를 방문해 포항 배터리 산업 클러스터 현장 시찰을 끝으로 포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